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 30주년 및 동아투위 30년사 '자유언론' 출판기념회

-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일시, 장소 : 2005년 3월 17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인 사 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문영희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전 그 때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원로분들과 우리 동지들 그리고 용기 있는 후배들을 함께 모시고 그 날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보니 더욱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동아투위는 오늘로 결성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30년이었습니다. 동아투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동아사태가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975년 3월 17일 새벽, 폭도들에 의해서 동아일보를 쫓겨난 우리들은 거리투쟁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아투위는 그 동안 12명의 동지를 잃었습니다. 자유언론을 실천하려다 언론인의 자리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투옥과 병고를 겪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동지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살아 있는 우리 동지 101명도 이젠 60~70대의 초로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 십 년간을 '문제의 인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군사정권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들은 이 사회의 주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에 따라 정부는 저희들 모두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동지들 가운데 여러분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염원이던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된 결과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아쉬운 것은 동아사태의 진상, 즉 광고탄압의 진행과정과 저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사태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모두 우리의 한 세기에 걸친 고난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곳만이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를 한결같이 무시해 왔습니다. 마치 지주가 소작인을 버리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내고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지난 군사독재 시절,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장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 종사자들을 해고시킨 사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이 과거 직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해직언론인이 아직도 거리에 남아 있는 곳은 동아일보뿐입니다. 그 때의 동아일보 성가는 언론인인 우리가 만든 것이지 사주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틈만 나면 그 성가를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동아일보의 언론자본'과 싸우면서 자유언론의 정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공동으로 열어주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님과 동아투위 30년사 '자유언론'의 출판을 지원해 주신 언론재단 정남기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17일